

차이의 정치학과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세미나 제안서

보내는 괴로움 : 완벽한 백수....엄기호

받는 역겨움 :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근처에서 얼떨거리는 백수들

다들 안녕하실려고 노력들 하시고 있죠? 나라가 모라토리움(국가파산)을 선언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난리도 아니군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고용불안은 점차로 심각해져가고 있지만 우리같이 우아한 백수, 백조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거의 남의 일(?)로 생각되는군요. 한번도 취직해 본 일이 없으니깐. 이러다가 우리들의 평생 소원은 '해고'라도 한번 당해보고 죽는게 아닐까 싶네요...비참해라...

서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의 전지구화는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 공황과 경제 위기도 사실은 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하는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월라스타인의 말처럼 자본의 전지구화는 시장으로서의 지리적 정복의 팽창을 한계에 부딪치게 하였고, 자본과 자본간의 격한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한 대립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서구 사회주의권이 지리적, 이념적으로 자본간의 격돌을 완충시키는 매트릭스의 역할을 했는데, 이 매트릭스가 빠져버리자마자 거의 지진을 방불케하는 자본간의 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전지구화가 곧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승리, 완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만 하지요. 자본의 전지구화와 근대 자본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혼란(chaos)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월라스타인의 [자유주의 이후]를 읽어보세요)

이런 현재의 위기에 대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그람시가 아닐까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는데 아직도 새것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 바로 그것이 진짜 위기이며 그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시즘이 출현하는 때이기도 하다는 그람시의 통찰은 몇십년의 간격을 넘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느껴집니다.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0년대 한때 뻥뻥 지적 유행으로 스쳐지나간 사조이며 80년대이후 신보수주의의 산물이며, 고도로 유희된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이 점차 대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보다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정치보다는 미학을 중요시하며, 경제보다는 문화를, 계몽대신에 반계몽을, 거대서사를 거부하고 소서사를 주창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인간의 계몽과 해방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푸코니 들뢰즈니 료파르니 데리다니 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이르면 거의 무정부주의적인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한 시대의 유행을, 한 시대의 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조악한 태도인지요. 그것이 보수주의이든 진보주의이든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단절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의 모순과 부조리에대한 '성찰적 성격'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거저거서 나오는 성찰적 근대화다 뭐다 하는 새로운 사조들도 근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탈근대적 패러다임의 대항속에서 잉태된 것이겠지요.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만 치부해버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혼돈을 단순한 몇가지의 질서로 대치해버릴려는 근대적 태도의 재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성찰적 근대화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성찰적'이라기 보다는 돌아온 '근대'에 대한 호산나로 의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일부의 견해이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장 보드리야르입니다. [유희에 대하여], [소비의 사회], [시뮬라시옹] 등은 참으로 읽어볼만 합니다. 이에 반해 성찰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입장은 기든스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나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을 추천하고 싶군요.)

세상이 단순한 몇가지의 법칙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보는 이제 별로 없을 것입니다. 뉴튼적 세계관의 붕괴는 이제 거의 사회과학에서도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오히려 불확정성의 원리나 카오스 이론이 더 신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대목에서는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를 추천하고 싶군요.) 사회과학계에서 관찰자의 개입에 의해 상황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학의 오래된 고전적 명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보다 학문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아닐까합니다. 혼돈을 혼돈으로 받아들이고 [한번도 반복되지 않는 무한한 질서]라는 개념으로 혼돈을 탐구하고자 하는 카오스 이론의 모순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자세는 모든 남근중심주의적 발상에 대한 거부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와 소서사, 주체의 해체와 [아방가르드는 없다]는 말로 표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인식을 공부해보고자하는 이유는 이 즈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혼란에 길을 잃고, 또는 혼란을 애써 못본체 눈을 가리고 보편적인 진리를 주문의듯이 외는 것이 우리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세야말로 현실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천지사방이 구분이 가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이 혼란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나라는 포지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소서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포지션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축으로하여(물론 이 포지션은 가변적인 것이고 멀티플한 것이죠...그러니 다축이며 동시에 유동적인 축이되는 것이죠) 그려지는 것이니깐요. 아주 작은 것을 보면 전체가 보인다는 카오스이론과 만나는 지점도 여기가 되겠지요. 자신의 포지션에서 지도를 그려내는 것.

그러나 페미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의 문제는 역시 논쟁적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에 대한 견해에는 수용적이지만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적인 견해라든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남근주의적 발상이 그것이지요. 이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과 논쟁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양자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면서 제대로된 여성해방 프로젝트를 모색해봅시다.

주교재 :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만남 - 한울출판사

부교재 :

해체론 시대의 철학 제 3 부 - 문학과 지성사

소비의 사회 - 문예출판사

미디어 이론 제 1 부 - 새물결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 문예출판사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6,7,8,10,11,12장 -한신출판사